

<http://dx.doi.org/10.17703/JCCT.2020.6.3.135>

JCCT 2020-8-17

코로나 19상황에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

Responding to negative emotions in COVID-19

양혜진

Hye-Jin Yang*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 19상황에서 대학신입생의 부정적 정서와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20년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충분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220부의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의 부정적 정서로는 답답함이 가장 높았으며 무기력, 불안, 분노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불안, 무기력, 분노, 두려움, 혼란 모두 여자가 남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기력은 가족, 친구, 지인과 대화하는 활동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에서 또는 혼자서 술 마시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 19, 부정적 정서, 대처방법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grasp the negative emotions of college freshmen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how to cope with them.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from April 6 to 13, 2020,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a total of 220 copies of the survey data, excluding insufficient survey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ubject's negative emotion was the most frustrating, and the average value was highest in the order of helplessness, anxiety, and anger.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it was found that anxiety, lethargy, anger, fear, and confusion all experienc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more women than me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egative emotion of the subject and the method for resolving the negative emotion, the helplessnes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ctivities of talking with family, friends, and acquaintanc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ased on these results, some practical methods that can be applied in universities are suggested.

Key words : COVID-19, negative emotion, responding

1. 서론

전세계적으로 태풍, 지진, 테러 등의 재난 발생이 증

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 같은 사회재난도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정회원,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접수일: 2020년 05월 25일, 수정완료일: 2020년 06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08월 05일

Received: May 25, 2020 / Revised: June 26, 2020

Accepted: August 05, 2020

*Corresponding Author: hjyang@dju.kr

Dept. of Social Welfare, Daejeon Univ, Korea

수 없다. 태풍,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는 재난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다[1].

가장 최근의 사례로 2020년 5월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본 연구에서는 이후 ‘코로나 19’로 줄여 기술하기로 함)에 의해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보고하고 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2020년 5월 31일 00시 기준 발표한 확진환자 수는 11,344명, 사망자는 269명이다. 원인 모를 지역사회 내 산발적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2].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수출 및 관광 위축 등으로 발생되어 코로나19가 중국에서의 전염을 넘어 국내에서도 크게 확산된다면 2020년 1분기 내국인의 국내 소비지출은 최대 0.4%p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3]. 이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이 중국 내에 집중될 경우,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2~0.3%p, 연간 최대 0.1%p 하락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 19가 한국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확산된다면,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6~0.7%p, 연간 최대 0.2%p 하락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3].

이러한 재난은 인명과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더욱 우리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전염병을 치르는 과정에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의 집단 트라우마 상황[4]뿐 아니라, 2020년 3월 경기도민 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 측정 및 심리치료 지원 제도 구축 관련 보도[5]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는 4월 9일부로 중3과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 실습이 많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집중이수제’를 도입하여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온라인 개학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업 결손을 막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과의 특성에 맞춰 판서로 원격강의 또는 직접 실습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려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 밴드를 중심으로 교사의 재량에 따라 e-클래스, 줌(ZOOM), 구글 클래스, ms 클래스 등을 채택하여 화상강의를 진행 중인 학교도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강의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컨설팅도 받고 있다[6].

이러한 변화는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생에 한번뿐인 대학 졸업식과 입학식이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개강일도 3월 2일에서 3월 16일로 미뤄졌고, 재택수업 기간을 2주간에서 무기한 연장 등 몇 차례의 수정안을 내며 한 학기 비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실험·실습 교과목에 대해 ‘기간집중이수제’를 도입하거나, ‘기말고사’ 시험의 경우도 일부 사전 신청한 교과에 한하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적 조치를 취한 후 대면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밀집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는 각 대학에서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함께 평가 공정성을 둘러싼 의심이 커지면서 ‘선택적 패스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6]. 또 5월 15일 기준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였다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자료를 근거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6월 1일 “코로나 19 이후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있고 상당수 대학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수업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실험·실습 등이 불가능하므로 등록금 반환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사가 보도되었다[7]. 결국, 교육부의 세심한 노력과 치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최적의 결과를 담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사회적 안전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적 현상을 반영하여 대학에 합격은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면 수업 또는 캠퍼스 생활 등 대학입학에 대한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코로나 19로 인한 부정적 정서의 수준

을 점검하고, 이들의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20대 초반의 신입생이라는 특정 계층에 국한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정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건강성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실천적 방법들을 제안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A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신입생 중 동일한 1학년 교양교과를 수강하는 학생들로 제한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였으며, 코로나 19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총 266명의 학생에게 설문을 배포하여 수거된 설문지는 229부이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지 9부를 제외하고 총 220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8].

2. 측정도구

부정적 정서 수준

본 척도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 및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보고에 기초하였다[5]. 코로나 19로 인한 부정적 정서로 불안, 초조, 답답함, 무기력, 분노, 두려움, 혼란, 불신 등 총 8개의 항목으로 0점(전혀 느끼지 않는다)에서 10점(최고조로 느낀다)의 10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903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이유 및 해소를 위한 방법

위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 1순위부터 5순위까지의 순위를 나열하고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응답으로 나타난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785이다.

또 코로나 19로 인한 부정적 정서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1순위부터 5순

위까지 순위를 나열하고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725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전공, 거주지역 등)과 부정적 정서 수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이유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부정적 정서 해소를 위한 방법의 우선순위는 빈도 및 퍼센트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제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정적 정서 수준별 해소 방법의 우선순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부정적 정서 수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우선순위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0)

구분	항목	N(%)
성별	남자	118(53.6)
	여자	102(46.4)
전공	융복합대학	1(.5)
	H-LAC	19(8.6)
	디자인.아트대학	22(10.0)
	사회과학대학	30(13.6)
	경영대학	44(20.0)
	공과대학	51(23.2)
	보건의료과학대학	40(18.2)
	한 의과대학	13(5.9)
거주지역	확진1,000명 이상 : 대구, 경북	20(9.1)
	확진 500-999명 : 서울, 경기	53(24.1)
	확진 100-499명 : 인천, 충남, 부산, 경남	65(29.5)
	확진 50-99명 : 강원, 충북, 울산	39(17.7)
	확진 50명 미만 : 제주,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세종	43(19.5)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53.6%(118명), 여자가 46.4%(102명)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전공은 공과대학 신입생이 가장 많은 23.2%(51명)였고, 다음은 경영대학 20.0%(44명), 보건의료과학대학 18.2%(40명), 사회과학대학 13.6%(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2020년 5월 31일 0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19 확진자의 규모에 따라 5개 지역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확진자가 100-499명 규모인 인천, 충남, 부산, 경남 거주자가 가장 많은 29.5%(65명)이었고, 확진자가 500-999명 규모인 서울, 경기 거주자는 24.1%(53명)이었다.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대구, 경북지역 거주자는 9.1%(20명)으로 응답자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코로나 19로 인한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유발 원인과 해소 방법

대상자의 부정적 정서 수준,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는 원인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에 대한 우선순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코로나 19로 인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평균은 답답함이 가장 높은 5.00 ± 2.94 , 무기력 3.87 ± 2.97 , 불안 3.05 ± 2.58 , 분노 2.44 ± 2.68 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는 원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한 결과 대상자들이 1순위로 뽑은 결과에 대해 빈도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외출자제로 인한 갑갑함(119명, 54.1%)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28명, 12.7%)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계단절·소통감소(27명,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에 대한 1순위 빈도분석 결과는 TV, 영화, 게임, 독서 등 문화생활을 즐긴다(134명, 60.9%)가 가장 많았고, 가족, 친구, 지인과 대화한다(82명, 37.3%), 산책이나 운동을 한다(64명, 29.1%),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60명, 27.3%), 잠을 잔다(57명, 25.6%)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성별, 지역에 따른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해소를 위한 대처의 차이

대상자의 성별과 확진자 규모별 지역 구분에 따라 부정적 정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4와 같다. 대상

자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느끼는 부정적 정서는 성별에 따라 불안($t=-2.298$, $p<.05$), 무기력($t=-2.673$, $p<.01$), 분노($t=-2.107$, $p<.05$), 두려움($t=-3.033$, $p<.01$), 혼란($t=-2.745$, $p<.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초조($F=3.502$, $p<.01$)와 답답함($F=3.110$, $p<.05$)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성별에 따라 산책이나 운동($t=2.717$, $p<.01$), 의사나 전문상담사와 상담($t=2.337$, $p<.05$)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집에서 또는 혼자 술마시기($F=3.997$, $p<.01$)와 기타($F=2.648$, $p<.05$)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2. 대상자의 부정적 정서

Table 2. Mean of study Variables

(N=220)

구분		Mean±SD / N(%)
부정적 정서수준	불안	3.05±2.58
	초조	2.38±2.45
	답답함	5.00±2.94
	무기력	3.87±2.97
	분노	2.44±2.68
	두려움	2.18±2.47
	혼란	2.32±2.55
	불신	1.61±2.31
부정적 정서 유발 원인	외출자제로 인한 갑갑함	119(54.1)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	28(12.7)
	소득·지출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	10(4.5)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로 인한 혼란	5(2.3)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계단절·소통감소	27(12.3)
	코로나 19관련 언론 보도	4(1.8)
	빈번히 올리는 긴급 재난 문자	19(8.6)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두려움	17(7.7)
	기타	13(5.9)
부정적 정서 해소를 위한 대처방법	산책이나 운동	64(29.1)
	TV, 영화, 게임, 독서 등 문화생활	134(60.9)
	일에 몰두	19(8.6)
	SNS를 통한 세상과 소통	53(24.1)
	가족, 친구, 지인과 대화	82(37.3)
	맛있는 음식 먹기	60(27.3)
	잠자기	57(25.9)
	종교활동	7(3.2)
	집에서 또는 혼자 술 마시기	8(3.6)
	의사나 전문상담사와 상담	5(2.3)
	기타	3(1.4)

4. 대상자의 부정적 정서와 해소 방법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학신입생의 부정적 정서인 무기력은 가족, 친구, 지인과 대화($r=-.152$, $p<.05$)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에서 또는 혼자서 술마시기($r=.161$, $p<.0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 19상황에서 대학신입생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의 수준과 이런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총 220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평균을 살펴본 결과, 답답함이 가장 높았으며 무기력, 불안, 분노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는 원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여 1순위로 뽑은 결과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외출자제로 인한 답답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계단절·소통감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민의 조사결과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인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 소득·지출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의 순위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5].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1순위 빈도분석 결과로는 TV, 영화, 게임, 독서 등 문화생활을 즐긴다가 가장 많았고, 가족, 친구, 지인과 대화한다, 산책이나 운동을 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잠을 잔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성별과 확진자 규모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대상자들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불안, 무기력, 분노, 두려움, 혼란 모두 여자 가 남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이러한 부정적 정서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초조와 답답함에 대해 확진자 50-99

명 규모의 강원, 충북, 울산 거주 신입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타지역 신입생에 비해 더 적게 초조와 답답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산책이나 운동, 의사나 전문상담사와 상담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집에서 또는 혼자 술 마시기에 대해 확진자 50-99명 규모의 강원, 충북, 울산 거주 신입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타지역 신입생에 비해 더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신입생의 부정적 정서인 무기력은 가족, 친구, 지인과 대화하는 활동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에서 또는 혼자서 술 마시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간관계와 학습된 무기력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라 볼 수 있다[9].

최근 코로나 19의 지역확산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생활환경과 업무환경, 교육환경 등에 대한 변화를 예견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10]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주도 아래 지역사회 및 각 개인이 함께 현 상황을 합리적으로 극복한 긍정적 사례로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배제된 시민들에 대한 고용과 복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쓴소리도 쏟아지고 있다[11].

대학 역시 대학의 1차적 목적인 재학생들의 교육시스템 정립 및 수업과 관련된 대안 마련뿐 아니라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으로 접어드는 과도기 대학생들의 특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가능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인 정신건강 및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역할 및 대처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재학생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크게 느끼는 정서가 불안과 무기력임을 지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별에 따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불안과

무기력을 더 크게 경험함에 초점을 두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안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여학생들 중심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의 정서적 건강성 회복 및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는 확진자 50-99명 규모의 강원, 충북, 울산 거주 신입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타지역 신입생에 비해 더 적게 초조와 답답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집에서 또는 혼자 술 마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결과로 나타난 활동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대학 신입생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 중 성인이 되었다는 자율성과 해방감을 경험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된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초조와 답답함을 덜 느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입생들에게 중요한 일상의 경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사회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된 클럽[12] 또는 만남포차[13] 등에 20대들로 인해 성업을 이루어 있다는 기사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때, 대학은 신입생들의 건전한 술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과 안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기력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신입생들은 가족, 친구, 지인과 대화하는 활동을 적게하고, 대신 집에서 또는 혼자서 술마시기를 더 많이 한다는 분석 결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무기력이 결국 우울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해석된다[14]. 따라서 대학 내 학생상담 센터 또는 각 학과에서는 무기력 경험이 많은 학생들일수록 혼자있는 시간을 줄이고, 주변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호 소통의 기회가 제공되는 실시간 화상 수업 참여 등을 통해 긍정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예방 시스템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Y. R. Lee, M. H. Lee, "A Study on Disaster

- Preparedness Competency in Public Health Center Worke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1, pp. 96-109, 2016.
- [2] KBS NEWS 9. 2020. 5. 31.
- [3] W. Ju, "Korea's Economic Impact of New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 Weekly Economic Review, Vol. 20, No. 4, pp. 1-11, 2020.
- [4] Y. L. Choi, "A study on the emotional experiences of child care teachers and changes in their daily routine in centers after COVID-19",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22, No. 1, pp. 253-279. 2020.
- [5] W. S. Lee, "Gyeonggi-do 59% 'I feel depressed with COVID-19'... Over 70% of women and older people", YOUNHAP NEWS, 2020. 03. 26.
- [6] J. H. Ryu, "Marine education institutes also respond to COVID-19 online classes", Ocean Korea, pp. 54-59, 2020. 5.
- [7] Y. S. Ko, "Request for return of college tuition under COVID-19, national solution", YOUNHAP NEWS, 2020. 06. 01.
- [8] H. J. Yang,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emotio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self-elasticity of college freshmen in COVID-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20(Under examination).
- [9] J. Choi, E. M. Hyun, "The Effect of Positive A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earned Helplessness : Focused on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 The Korean Journal of Technology Education, Vol. 18, No. 3, pp. 130-152, 2018.
- [10] M. S. Ann, "Let's solve it through ICT-based telecommuting and telecommuting", Digital prospectus, 2020.
- [11] J. S.. Yoon, "COVID-19, successful quarantine and unsuccessful employment·welfare", Monthly welfare trend, Vol. 259, pp. 30-35, 2020.
- [12] J. Y. Lee, "Corona 19 13 confirmed 'Itaewon Club', Gobbie this weekend", Money Today, 2020. 05. 16.
- [13] H. J. Kim, "Hongdae Hanshinpocha is a new cluster?... Corona 19 confirmed by 5 of 6 people", cnbNEWS, 2020. 05. 14.
- [14] C. Alice, "Brain science when depressed", SimSim, 2018.

표 3. 성별, 지역에 따른 부정적 정서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negative emotions by gender and region

(N=220)

구분		성별에 따른 차이				지역에 따른 차이											
		성별	N	Mean	SD	t	지역구분	N	Mean	SD	F	사후검증					
심리적 정서	불안	남자	118	2.68	2.65	-2.298*	A	20	3.7500	2.63329	2.223						
							B	53	2.9057	2.23834							
							C	65	3.2462	2.76151							
		여자	102	3.47	2.43		D	39	2.0769	2.27555							
							E	43	3.4651	2.75464							
							전체	220	3.0455	2.57628							
	초조	남자	118	2.14	2.40	-1.578	A	20	3.3000	2.81163	3.502**		D < A, B, C, E				
							B	53	2.3962	2.33979							
							C	65	2.5692	2.44291							
		여자	102	2.66	2.49		D	39	1.1795	1.55380							
							E	43	2.7209	2.78880							
							전체	220	2.3773	2.45106							
	답답함	남자	118	4.70	3.05	-1.616	A	20	5.5500	2.76205	3.110*		D < A, C, E				
							B	53	4.5472	2.59856							
							C	65	5.5231	3.09287							
		여자	102	5.34	2.78		D	39	3.8205	2.84579							
							E	43	5.5814	2.97796							
							전체	220	5.0000	2.93926							
	무기력	남자	118	3.38	2.89	-2.673**	A	20	4.1000	2.46875	.734						
							B	53	3.8868	3.02973							
							C	65	4.1077	2.97449							
		여자	102	4.44	2.98		D	39	3.1538	2.71970							
							E	43	4.0465	3.34489							
							전체	220	3.8727	2.97358							
	분노	남자	118	2.08	2.60	-2.107*	A	20	2.2000	2.09259	1.539						
							B	53	1.9245	2.18253							
							C	65	3.0000	3.14245							
		여자	102	2.84	2.73		D	39	2.0513	2.53345							
							E	43	2.6744	2.78363							
							전체	220	2.4364	2.68269							
	두려움	남자	118	1.72	2.30	-3.033**	A	20	2.3000	2.22663	1.647						
							B	53	1.9057	2.41998							
							C	65	2.5231	2.72206							
		여자	102	2.72	2.57		D	39	1.4615	1.72971							
							E	43	2.6047	2.72676							
							전체	220	2.1818	2.47243							
	혼란	남자	118	1.89	2.44	-2.745**	A	20	2.3500	2.41214	1.133						
							B	53	2.0566	2.46838							
							C	65	2.6000	2.85482							
		여자	102	2.82	2.60		D	39	1.7436	2.08652							
							E	43	2.7442	2.60122							
							전체	220	2.3227	2.55361							
	불신	남자	118	1.42	2.21	-1.341	A	20	1.7500	2.38140	.404						
							B	53	1.3396	2.18336							
							C	65	1.8154	2.34449							
		여자	102	1.83	2.41		D	39	1.4359	2.40389							
							E	43	1.7209	2.35357							
							전체	220	1.6091	2.30978							

* p<.05 ** p<.01 ***p<.001

A - 확진1,000명이상 : 대구, 경북, B - 확진 500-999명 : 서울, 경기, C - 확진 100-499명 : 인천, 충남, 부산, 경남, D - 확진 50-99명 : 강원, 충북, 울산, E - 확진 50명 미만 : 제주,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세종

표 4. 성별, 지역에 따른 부정적 정서 해소를 위한 방법 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methods for resolving negative emotions by gender and region

(N=220)

구분		성별에 따른 차이					지역에 따른 차이						
		성별	N	Mean	SD	t	지역구분	N	Mean	SD	F		
부 정 적 정 서 해 소 방 법	산책 이나 운동	남자	118	3.2797	1.653 21	2.717**	A	20	3.5000	1.46898	.872		
							B	53	3.0000	1.75412			
							C	65	2.8923	1.76885			
							D	39	3.1795	1.68385			
							E	43	2.7209	1.75018			
							전체	220	2.9909	1.72012			
	TV, 영화, 게임 독서등 문화 생활	남자	118	4.2203	1.241 28	.199	A	20	4.1000	1.44732	.569		
							B	53	4.0755	1.41216			
							C	65	4.1385	1.32142			
							D	39	4.4103	1.16343			
							E	43	4.3256	.96907			
							전체	220	4.2045	1.26382			
	일에 몰두	남자	118	2.6271	1.495 27	.612	A	20	2.7500	1.58529	.393		
							B	53	2.5283	1.60053			
							C	65	2.4769	1.62122			
							D	39	2.7949	1.48996			
							E	43	2.4651	1.36885			
							전체	220	2.5682	1.53495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	남자	118	3.0678	1.657 56	-.305	A	20	2.8500	1.78517	.634		
							B	53	2.8679	1.69884			
							C	65	3.1231	1.78979			
							D	39	3.3077	1.54160			
							E	43	3.2791	1.57851			
							전체	220	3.1000	1.67958			
가족, 친구, 지인과 대화	남자	118	3.6780	1.395 24	-.676	A	20	3.5500	1.43178	.733			
						B	53	3.5472	1.53881				
						C	65	3.8000	1.36015				
						D	39	4.0000	1.14708				
						E	43	3.7209	1.36845				
						전체	220	3.7364	1.37610				
맛있는 음식 먹기	남자	118	3.1356	1.714 27	-.137	A	20	3.1000	1.91669	.313			
						B	53	3.0377	1.68662				
						C	65	3.3077	1.64813				
						D	39	3.2308	1.66167				
						E	43	3.0000	1.64751				
						전체	220	3.1500	1.67448				
잠자기	남자	118	3.0000	1.699 67	1.565	A	20	3.0000	1.83533	.715			
						B	53	3.0566	1.66889				
						C	65	2.5538	1.87942				
						D	39	2.9487	1.57194				
						E	43	2.7674	1.86237				
						전체	220	2.8273	1.76655				
종교 활동		118	1.0169	1.109 27	1.403	A	20	1.1000	1.41049	1.215			
						B	53	.8868	1.03144				
						C	65	.8154	1.02914				
						D	39	1.2051	1.08044				
						E	43	.8140	.66389				
						전체	220	.9273	1.02221				
집에서 또는 혼자 술 마시기		118	1.4492	1.374 97	1.140	A	20	1.6500	1.46089	3.997**	D > B, C, D		
						B	53	1.0755	1.20654				
						C	65	1.0923	1.07126				
						D	39	2.0000	1.60591				
						E	43	1.3721	1.29142				
						전체	220	1.3545	1.32476				
의사나 전문 상담사 와 상담		118	.9576	1.032 75	2.337*	A	20	1.1000	1.41049	1.850			
						B	53	.6792	.70092				
						C	65	.7538	.81069				
						D	39	1.0769	1.01007				
						E	43	.7907	.59993				
						전체	220	.8318	.86741				
기타	남자	118	.1017	.6588 0	.043	A	20	.5000	1.53897	2.648*	A > B, C, D, E		
						B	53	.0189	.13736				
						C	65	.0462	.37210				
						D	39	.0256	.16013				
						E	43	.1628	.81446				
						전체	220	.1000	.63318				

표 5.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해소 방법 간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ways to resolve negative emotions

구분	부정적 정서										해소 방법									
	불안	초조	답답함	무기력	분노	두려움	혼란	불신	산책	문화	일	SNS	대화	음식	잠	종교	운동	상담	기타	
부정적 정서	불안	1																		
	초조	.717**	1																	
	답답함	.470**	.513**	1																
	무기력	.518**	.502**	.637**	1															
	분노	.461**	.406**	.526**	.396**	1														
	두려움	.750**	.633**	.462**	.491**	.594**	1													
	혼란	.631**	.639**	.531**	.481**	.523**	.728**	1												
	불신	.511**	.540**	.433**	.403**	.547**	.613**	.649**	1											
	산책	-.033	-.063	.014	-.114	-.057	-.087	-.022	.007	1										
	문화	-.017	.015	.036	.049	.122	.063	.059	.059	.032	1									
해소 방법	일	-.042	.029	-.005	-.022	-.057	.036	.040	.022	.312**	.215**	1								
	SNS	.079	.074	.106	.067	.065	.108	.101	.022	.173*	.128	.224**	1							
	대화	-.006	.004	.002	-.152*	.070	.020	.053	-.012	.119	.291**	.197**	.298**	1						
	음식	-.061	.020	.002	-.032	.032	.051	.108	.077	.292**	.231**	.391**	.269**	.348**	1					
	잠	-.053	-.003	-.068	-.011	-.019	.024	.033	.071	.258**	.286**	.478**	.298**	.301**	.461**	1				
	종교	.022	.091	-.065	.027	.003	.096	.102	.127	.275**	.135*	.428**	.244**	.175**	.377**	.400**	1			
	운동	.041	.060	.014	.161*	.012	.004	.077	.102	.158*	.186**	.354**	.173*	.192**	.270**	.350**	.444**	1		
	상담	-.025	.017	-.057	-.007	-.023	.006	.043	.051	.274**	.094	.422**	.265**	.188**	.354**	.437**	.759**	.581**	1	
	기타	-.020	.126	.098	.033	.017	.047	.053	.061	.093	.060	.096	.106	.099	.055	.085	.131	.186**	.197**	

* p<.05 ** p<.01 ***p<.001